



성령의 역사

©아제르 인트레이터, 2007년 12월 20일

조대 예슈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매우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사역의 동행자였으며, 모든 의지와 지성에 있어서 협력하셨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돈을 잘못 다룸으로써, 베드로에 표연에 따라 “성령께 거짓말하고(3절) 성령을 시험한(9절)” 자들이 되었습니다.

2. **사도행전 5장- 재판 받는 사도들:** 다시 한번 체포된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부wal의 증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또한 증인이십니다(32절).”

3. **사도행전 7장- 순교자 스테반:** 돌에 맞기 직전에, 스테반은 자신들을 치는 자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늘 성령을 거역해 왔다(51절)” 고 말합니다.

4. **사도행전 8장- 빌립과 내사:**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사의 마차에 다가가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29절). 말씀 나누기를 마쳤을 때, 성령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고(39절)” 초자연적으로 아쉬돌까지 날라다 주셨습니다.

5.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묵상했을 때,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음과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야하리라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19절, 11:12도 참고).

6.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선교 팀:** 안디옥에는 교사와 예언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금식

아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를 지시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구별하여 그들에게 내가 맡길 사역을 감당케 하라’ 하셨습니다.”

7.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의 결정**: 지도자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방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를 필요 없이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지도자들과 성령님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중았다(28절).”

8.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 **행**: 사울(바울)과 그의 일행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유럽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6~7절).”

9. 사도행전 20장 - 바울에게 **고난을 예고하심**: 바울이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은 어느 성읍에 서든지, 투옥과 완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23절).”

10. 사도행전 20장 -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세움**: 바울 일행이 그 곳에서 장로들을 세웠을 때, 그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장림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성도들의 무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28절).”

이 모든 예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사고하는 분이시며 소대 성도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지시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만 가진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묘사되지 않고, 감정과 의견을 가진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슈아를 주로 믿었던 한편,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교체하고 관계를 갖는 대상은 성령이셨습니다. 예슈아께선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께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편재하시지만, 위에 언급한 예들은 특별한 때와 장소에 특별하게 임재하신 경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류가 대기 중에 늘상 있는 한편 번개가 칠 때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그 분의 때에 따른 임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애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믿음 가운데 다

른 존재(성령님)와 역동적으로 협력했고, 그 분께서는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아셨고, 언제나 함께 거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번역: 고병연